

서비스업 고용동향 파악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보완적 활용

임 용 빈*

본고는 서비스업 고용동향을 조사자료, 협회 및 단체에서 발간되는 자료,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현재의 취업자 수준과 증감 추세가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소매업의 경우, 자료마다 중분류 업종의 고용감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 음식 및 숙박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많아진 것과 일식, 서양식 등 종사자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 무인단말기의 도입이 많아진 것이 동일하게 관찰되고, 금융보험업의 판매직 감소는 최근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최근의 서비스업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한 자료에서 관측되어 향후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완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1. 머리말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는 우리나라 고용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 통계이며,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등 노동시장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입장에서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행정자료(이하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작성주기가 월간으로 노동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경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경우 취업자나 사업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업종 정보가 제한적이고, 고용보험통계의 경우 자료의 특성상 고용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취업자의 업종 정보를 소분류 단위까지 분류하여 취업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1년에 2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상대오차에 따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네 가지 통계자료는 통계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ybim@kli.re.kr).

청 KOSI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근 고용동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통계자료로 각 자료가 가진 장점과 단점, 한계점을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 서비스업 내 다양한 업종, 분야별로 많은 조사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크게 네 가지 자료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서비스업조사를 통해 세세분류 업종별로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구조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로, 매년 약 25만 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E,G,I,J,L,M,N,P,Q,R,S)을 조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조사는 1988년부터 조사(총사업체통계조사)가 실시되었고, 2022년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변경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외 작성단위를 세분화하거나 조사 업종 수를 늘리거나 다른 업종의 조사를 통합하고 경제총조사 실시로 인해 미실시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시계열의 단절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업조사에서 누락된 운송 및 창고업은 운송업조사를 통해 세세분류별 중

〈표 1〉 서비스업 내 통계자료 목록

통계종류	통계명 (작성기관)	자료 주기	최신 자료	산업분류 적용 단위	조사대상
조사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간 (부가=연)	2023년 6월	대분류	모집단 : 대한민국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 : 36,000가구/월
조사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월간	2023년 5월	중분류	모집단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 50,000사업체(고용부문)
보고통계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원)	월간	2023년 5월	소분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조사통계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반기	2022년 하반기	소분류	모집단 : 대한민국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 : 230,000가구
조사통계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통계청)	연간	2021년	세세분류	모집단 : 11개 대분류 업종(E, G, I, J, L, M, N, P, Q, R, S)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기업체(운수업조사) 표본 : 약 250천 개 사업체(서비스업) 약 15,000개 업체(운수업)
조사통계	콘텐츠산업조사, 관광산업조사 등	연간	2021년	세세분류	통계작성기관 및 목적에 따른 분야별 산업구조와 인력현황
보고통계	어린이집 현황, 교육통계, 건강보험통계 등	연간	2022년	세세분류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기타	협회 및 단체 자료	비정기	실시간	기타 분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협회 및 단체 내 전문자격 및 면허보유자

주: 최신자료는 2023년 7월 15일 기준 활용이 가능한 자료(latest data)를 의미하며, 서비스업 내 자세한 통계자료 목록은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각 조사자료별 통계설명자료.

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관광산업조사, 콘텐츠산업조사 등 특정 업종의 산업구조와 인력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자료를 통해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기관의 교직원 현황, 의료인력 현황 등 정책 시행에 필요한 인력 정보를 수집하여 분야별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보고통계는 정책 부서의 업무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통계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료공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협회, 대한항공협회 등 특정 업종별로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협회 및 단체에서 작성한 통계를 통해 매년 업종의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협회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자료 특성에 따라 연간 혹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서비스업조사와 각 부문별 조사통계, 보고통계는 자료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통계의 작성주기가 1년 이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시계열이 단절되는 등 자료를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경찰자료 및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세부 업종별 고용상황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집단이 다르고 활용목적이 다른 통계자료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용동향을 보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로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자료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용동향을 자료의 특성에 맞게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은행의 점포 수 감소, 기간제 교사의 증가와 같이 최근 업종별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용동향 이슈가 다른 자료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동향

1. 도소매업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21년 도소매업 취업자는 335만 명 수준으로 서비스업 중 가장 많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같은 기간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219만 명, 고용보험피보험자는 166.6만 명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의 경우 각각 334만 명, 367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수치이다.

중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도매업, 소매업 취업자는 각각 100만 명으

로 두 업종이 비슷한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도매업이 114만 명, 소매업이 207만 명으로 소매업 취업자가 더 많다. 반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도매업이 91만 명, 소매업은 70만 명으로 도매업 피보험자가 더 많다. 서비스업조사에서는 도매업이 156만 명으로 소분류 업종인 기타전문도매업, 생활용품도매업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된 취업자가 많다. 소매업 취업자는 지역별고용 조사와 서비스업조사 모두 200만 명으로 파악되어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표 2〉 2021년 자료원천별, 소분류별 도소매업 취업자

(단위:천 명)

업종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통계(A)	지역별 고용조사	서비스업 조사(B)	A/B
(대)도매 및 소매업	3,353	2,189	1,666	3,342	3,668	0.45
(중)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117	56	140	141	0.39
(소)자동차 판매업	-	-	26	80	71	0.37
(소)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27	55	65	0.42
(소)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	-	2	6*	5	0.47
(중)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052	913	1,138	1,563	0.58
(소)상품 중개업	-	-	68	71	52	1.30
(소)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	23	24	42	0.55
(소)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138	316	342	0.40
(소)생활용품 도매업	-	-	224	233	386	0.58
(소)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	189	213	347	0.55
(소)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56	92	130	0.43
(소)기타 전문 도매업	-	-	104	169	212	0.49
(소)상품 종합 도매업	-	-	111	24	51	2.18
(중)소매업: 자동차 제외	-	1,020	697	2,065	1,965	0.35
(소)종합 소매업	-	-	246	591	468	0.52
(소)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	53	219	216	0.24
(소)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	51	124	89	0.57
(소)섬유, 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44	252	247	0.18
(소)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33	126	100	0.33
(소)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	21	59	61	0.35
(소)연료 소매업	-	-	31	62	63	0.49
(소)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	99	264	259	0.38
(소)무점포 소매업	-	-	121	370	462	0.26

주 : 지역별고용조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 증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상대표준오차(25% 이상)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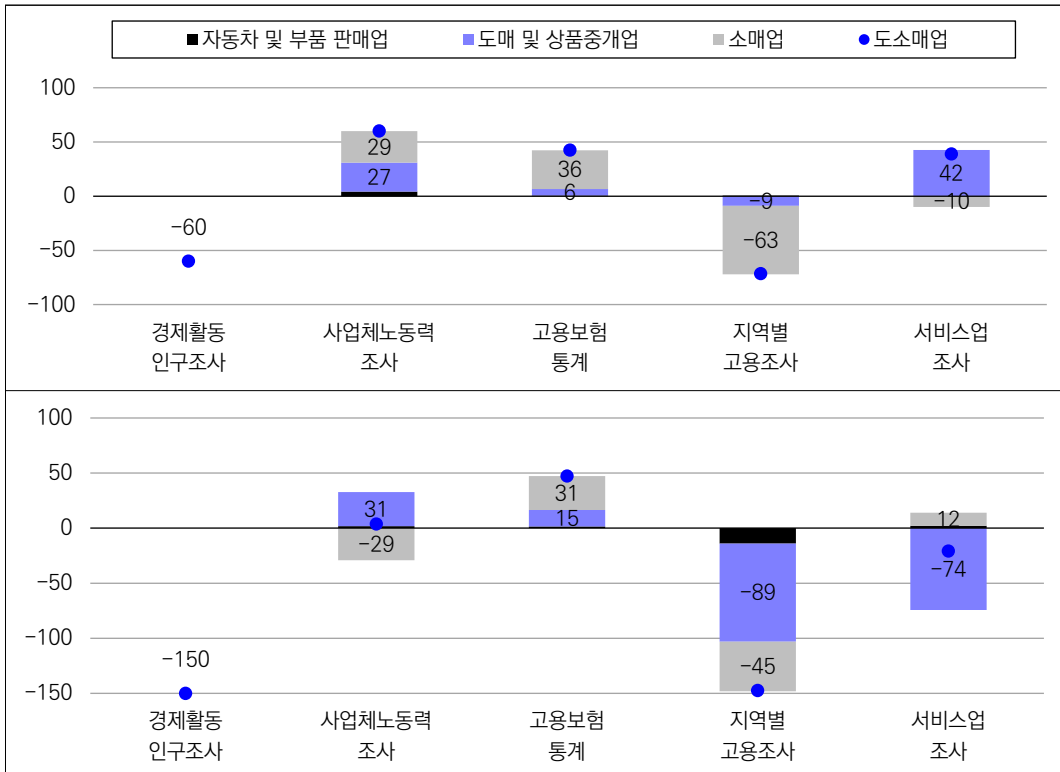
보험 가입이 저조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업조사 취업자(B)와 고용보험 피보험자(A) 비(A/B, ratio)를 살펴보면 도매업 중 소분류 업종인 생활용품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 등에서 비교적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섬유 및 의복, 가전제품을 파는 소매업이나 온라인, 통신 판매가 이루어지는 무점포 소매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조사통계 기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도소매업은 경찰조사상 코로나19의 영향과 상관없이 2017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다. 경찰조사상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9년 6만 명, 2021년 15만 명 감소했는데, 사업체노동력조사는 2019년 도매업과 소매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1년에는 소매업에서 3만 명 감소했으나 도매업에서 3만 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통계에서는 2019년, 2021년 모두 소매업을 중심으로 4, 5만 명의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조사와 차이가 크게 난다.

[그림 1] 자료원천별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추이(위: 2019년, 아래: 2021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반면, 지역별고용조사는 2019년 소매업에서 취업자가 6.3만 명 감소하고, 2021년에는 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도매업에서 9만 명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조사에서는 2019년 도매업 취업자가 4.2만 명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반대로 도매업에서 7.4만 명 감소하고 소매업 종사자에서 5.1만 명 증가했다. 도매업 중에서는 소분류 업종별로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1.7만), 기계장비 관련 도매업(-1.4만), 기타 전문 도매업(-1.3만)에서 감소했고, 소매업은 섬유 의복 신발 소매업(-1.1만)에서 감소했으나 무점포 소매업(+6.8만)에서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소매업의 고용감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료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운수 및 창고업

운수 및 창고업은 택배업이나 배달업과 같이 종사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 버스, 택시 및 수상 운송업과 같이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항공 운수업과 같이 면허 발급이 필수적인 업종 등 다양한 성격의 업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통계청 운수업조사¹⁾, 협회 및 단체 자료와 정보관리 시스템과 같은 보고통계를 활용하여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21년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158.6만 명, 사업체노동력조사는 71.7만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65만 명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경찰조사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운수업조사에서 2021년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131.6만 명으로 경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보다는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다. 운수업조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차이(ratio)를 통해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항공 운송업의 경우 피보험자와 운수업조사 통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보다 운수업조사가 적게 나타났다. 반면, 도로 화물 운송업 및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늘찬 배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이 매우 낮다. 소분류별 육상 여객 운송업(버스, 택시)은 비교적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화물 운송업(일반, 용달, 개별) 및 택배업 및 늘찬 배달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운수업조사의 취업자 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가 경찰조사에서 2021년 10.3만 명, 2022년

1)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운수업조사는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중분류별 4개 업종과 세세분류별 46개 업종별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부가가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운수 및 창고업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조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기업등록통계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표 3〉 2021년 자료원천별, 소분류별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단위: 천 명)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통계(A)	지역별 고용조사	운수업조사 (B)	A/B
(대)운수 및 창고업	1,586	717	646	1,598	1,316	0.49
(중)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	403	317	1,190	1,040	0.31
(소)철도 운송업	-	-	18	35	-	-
(소)육상 여객 운송업	-	-	236	476	428	0.55
(소)도로 화물 운송업	-	-	48	405	425	0.11
(소)소화물 전문 운송업	-	-	15	275	155	0.09
(소)파이프라인 운송업	-	-	0	0*	-	-
(중)수상 운송업	-	20	16	24	25	0.62
(소)해상 운송업	-	-	14	22	24	0.57
(소)내륙 수상 및 항만 운송업	-	-	2	2*	1	1.89
(중)항공 운송업	-	29	39	42	36	1.08
(소)항공 여객 운송업	-	-	39	39	30	1.28
(소)항공 화물 운송업	-	-	1	4*	6	0.09
(중)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65	274	343	215	1.28
(소)보관 및 창고업	-	-	25	175	25	1.01
(소)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249	169	190	1.31

주 :1) 지역별고용조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 증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상대표준오차(25% 이상)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움.

2) -는 운수업조사에서 미조사된 부문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운수업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6.9만 명 늘어났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경찰조사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화물, 택배 및 배달 관련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택시, 버스와 같은 육상 여객 운송업과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은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운송 및 창고업 중 협회 및 단체를 활용하여 분류별 종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표적으로 세세분류에 속하는 택시운송업의 경우 운수업조사에서는 종사자가 25만 명으로 나타나지만 협회 및 단체 자료를 활용하면 최근 23.5만 명으로 조사통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회 및 단체로 확인이 어려운 도로 화물 운송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화물회사에 소속된 운수 종사자를 파악할 수 있다. 버스 및 택시 운수 종사자는 운수업조사와 협회 및 단체 자료가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고, 고용보험통계로 확인되지 않던 도로 화물 운송 종사자는 운수업조사(42.5만 명)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료(40만 명)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택배 및 늘찬 배달업 관련 종사자 규모는

〈표 4〉 협회 및 단체, 업종관련 보고자료를 활용한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단위: 명)

	운수업조사 (2021년)	협회 및 단체	
	규모(명)	규모(명)	출처 및 기간
(소)철도 운송업	-	33,337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정원현황(2023)
(소)육상 운송업	427,922	-	
(세세)도시 철도 운송업	30,651	29,557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정원현황(2023)
(세세)시내버스 운송업	96,778	35,25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_시내버스(2023.04)
(세세)기타도시 육상 여객	710	2,075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_농어촌버스(2023.04)
(세세)시외버스 운송업	12,880	6,86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_시외,고속버스(2023.04)
(세세)전세버스 운송업	35,452	39,296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_전세버스 보유대수(2023.03)
* 버스 운수 종사자	145,820	132,784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_버스 운수 종사자(2022)
(세세)택시 운송업	249,622	70,760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_일반택시 운전자(2023.04)
		164,378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_개인택시 등록(2023.04)
* 택시 운수 종사자	249,622	236,407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_택시 운수 종사자(2022)
(소)도로 화물 운송업	425,149	398,987	
(세세)일반 화물자동차	163,829	200,606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_화물 운수 종사자(2022)
(세세)용달 화물자동차	174,453	131,633	
(세세)개별 화물자동차	86,867	66,748	
(중)수상운송업	25,014	15,501	한국선원통계연보_국적(Korean)선 상선(2022,12)
	-	1,643	한국선원통계연보_해취(Foreign)선 상선(2022,12)
(중)항공운송업	36,119	25,559	한국항공협회_업체별 항공종사자 현황(2022)

주 : 1) 소분류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 중분류별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제외.

2) 승선원(해기사, 부원) 및 예비원을 모두 합한 수를 의미, 어선(원양, 연근해)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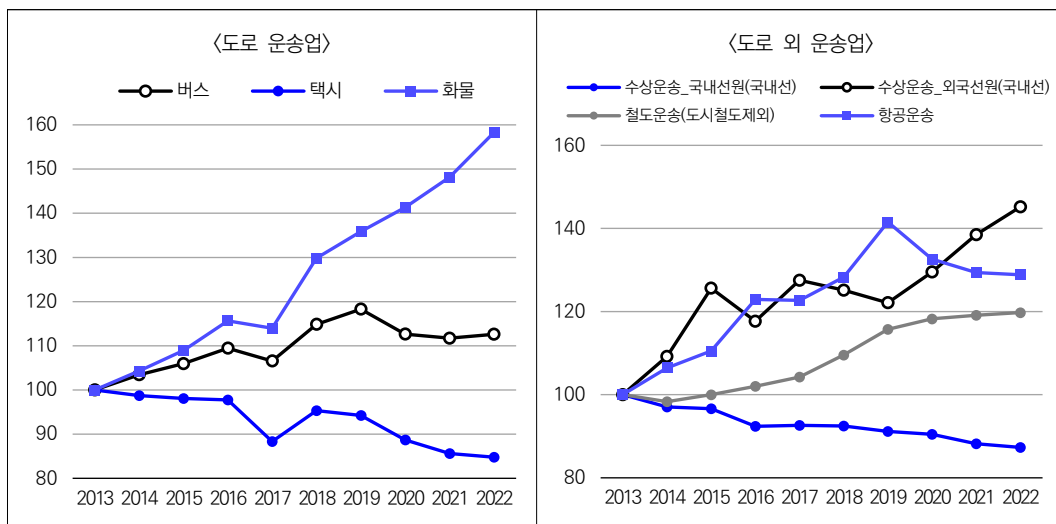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정보 시스템;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항공협회.

전국 단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회와 단체가 없으며, 업종 진입을 위한 면허 취득에도 장벽이 없어 협회 자료 및 보고통계를 통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표 4〉에서 협회 및 단체 자료와 보고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종사자의 전체 규모는 87.4만 명 수준으로, 조사통계의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130만 명과는 4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있다. 현재의 자료수준에서는 협회 및 단체 자료와 운수업조사의 차이를 택배 및 늘찬배달 관련 종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택시, 버스, 화물 운전 종사자의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택시의 경우 2005년부터 시행된 택시 총량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13년 택시 종사자 수가 100일 때, 2019년 택시 종사자가 9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22년에는 8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버스의 경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감소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화물 운송업의 경우 2013년 이후 10년 동안 1.6배로 취업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림 2] 지난 10년간(2013~2022) 운송수단별 상대적 취업자 수준 추이(2013=100)



주 : 2013년 종사자 수준을 100으로 하여 이후 추세를 비교하였음.
 자료 : 〈도로 운송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정보 시스템. 〈도로 외 운송업〉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항공협회.

도시광역철도를 제외한 철도 운송 종사자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항공 운송 관련 종사자의 규모는 2019년까지 빠르게 증가해 1.4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수상 운송업(국내선) 중 국내선원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3.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21년 연평균 210만 명,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은 103만 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66.6만 명으로 경찰조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통계자료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와 서비스업조사는 전체 숙박 및 음식점 규모가 경찰과 비슷한데, 중분류,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숙박업은 서비스업조사에 비해 고용보험가입자가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수치이고, 음식 및 주점업은 10명 중 3명에 가깝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서비스업조사의 0.22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업점의 고용보험 가입비중이 절반 이하인 0.10(=4.5만/44.9만)으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 5〉 2021년 자료원천별, 소분류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단위: 천 명)

업종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통계(A)	지역별 고용조사	서비스업 조사(B)	A/B
(대)숙박 및 음식점업	2,098	1,030	666	2,117	2,108	0.32
(중)숙박업		89	69	131	170	0.41
(소)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			65	125	161	0.40
(소)기타 숙박업			4	6*	9	0.44
(중)음식점 및 주점업		943	597	1,987	1,938	0.31
(소)음식점업			501	1,588	1,494	0.34
(소)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96	399	443	0.22

주: 지역별고용조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 증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상대표준오차(25% 이상)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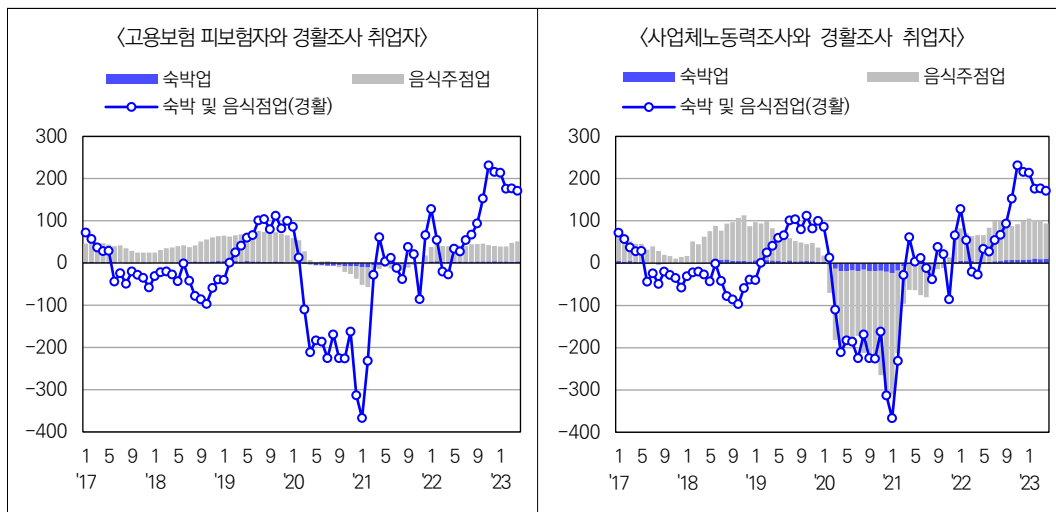
통계자료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변화도 자료원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크게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소된 최근에 다시 고용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통계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 5만 명 내외의 피보험자가 감소했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5, 6만 명의 숙박음식점업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기간 동안 똑같이 감소했고, 감소폭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조사를 통해 음식 및 주점업 내 세분류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소분류인 음식점 중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5년에 걸쳐 조금씩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매장의 비중이 높은 기타 간이 음식점업(제과, 치킨, 햄버거 전문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소분류인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중에서는 주점업이 비알코올 음료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이후로 커피전문점으로 대표되는 비알코올 음료점의 비중이 더 많아졌고, 특히 2020년, 2021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점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업점의 고용보험 가입비중이 증가한 것은 세분류 업종의 비중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외식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3,000여 개의 외식업체

[그림 3] 자료원천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를 조사하여 외식업체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 수 및 근로여건과 같은 정보를 통해 음식점업의 세부 업종별로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한식보다 중식, 일식, 서양식과 같은 외국식 음식점업이 점포당 근로자 수가 적게는 0.9명 많게는 1.8명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비프랜차이즈 점포보다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의 근로자 수가 약 1.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주문기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2018년 0.9%의 무인주문기 설치 비율이 2022년에는 6.1%로 늘어났다. 주로 점포당 근로자 수가 많은 일식, 서양식에서 무인주문기 설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약 10%의 식당이 무인주문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점포당 근로자 수도 일식, 서양식 모두 0.7명씩 감소하였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무인주문기 비율이 3.7%에서 15.6%로 늘어나면서 점포당 근로자 수가 0.8명 감소하였다. 주로 인력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최근 음식점업에서 고용이 소규모인 사업장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숙박업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으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숙박업은 호텔, 여관, 콘도, 민박 등 일반 숙박시설 운영업과 고시원 및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숙박업으로 나뉘는데 서비스업조사 기준 호텔 및 여관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호텔 및 여관업 종사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게스트하우스, 야영 및 캠프시설을 운영하는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텐트 숙박 및 차박 문화가 발달한 영향으로 보인다.

〈표 6〉 세분류별 음식점 및 주점업 비중 추이

(단위: %)

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음식점 및 주점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음식점업	77.4	77.4	77.0	76.4	77.7	77.1
(세)한식 음식점업	44.9	44.8	44.2	43.7	43.3	41.2
(세)외국식 음식점업	11.0	11.3	11.2	10.9	11.2	11.8
(세)기관 구내식당업	3.4	3.4	3.4	3.1	3.5	3.5
(세)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0.1	0.1	0.1	0.1	0.2	0.1
(세)기타 간이 음식점업	18.0	17.8	18.1	18.6	19.5	20.4
(소)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22.6	22.6	23.0	23.6	22.3	22.9
(세)주점업	13.3	12.9	12.1	11.6	9.7	8.8
(세)비알코올 음료점업	9.3	9.7	10.9	12.0	12.6	14.0

주: 2016~2019년은 서비스업조사가 조사기반, 2020,2021년은 등록기반으로 이루어져 종사자 규모의 시계열 비교는 어려움.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표 7〉 세부업종별 음식점 및 주점업 무인주문기 사용률과 점포당 월평균 근로자 수 추이

업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음식 및 주점업 전체	근로자 수(명)	2.88	2.80	2.93	2.85	2.81
	무인주문기(%)	0.9	1.5	3.1	4.5	6.1
일반음식점-한식	근로자 수	2.89	2.88	3.02	3.00	2.83
	무인주문기	0.1	0.5	1.9	2.7	3.8
일반음식점-중식	근로자 수	3.77	3.84	3.55	3.80	3.54
	무인주문기	0.6	2.9	3.8	0.9	2.4
일반음식점-일식	근로자 수	4.04	3.76	3.61	3.44	3.35
	무인주문기	1.5	5.3	2.4	6.7	14.4
일반음식점-서양식	근로자 수	4.68	4.18	4.18	3.58	3.92
	무인주문기	2.2	2.9	6.8	13.1	9.6
일반음식점 외	근로자 수	2.70	2.54	2.73	2.59	2.65
	무인주문기	1.6	2.1	3.9	5.9	7.7
일반음식점 외-주점업	근로자 수	2.38	2.19	2.21	2.09	2.32
	무인주문기	0.0	0.5	1.4	1.7	1.2
일반음식점 외-비알코올음료점	근로자 수	2.61	2.66	2.89	2.67	2.70
	무인주문기	3.4	3.3	5.8	6.6	11.7
프랜차이즈 음식점	근로자 수	4.33	3.31	3.73	3.43	3.50
	무인주문기	3.7	4.2	6.9	9.7	15.6
비프랜차이즈 음식점	근로자 수	2.62	2.66	2.64	2.65	2.61
	무인주문기	0.4	0.8	1.7	2.7	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표 8〉 세분류별 숙박업 비중 추이

(단위: %)

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숙박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93.3	93.4	94.0	94.0	93.8	94.4
(세세)호텔업	23.8	24.0	23.7	22.5	22.3	22.5
(세세)여관업	35.9	34.2	33.8	32.1	33.2	31.8
(세세)휴양 콘도 운영업	8.5	8.6	8.9	9.2	7.3	7.1
(세세)민박업	9.4	10.4	10.4	11.1	11.5	11.9
(세세)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15.6	16.3	17.2	19.2	19.6	21.1
(소)기타 숙박업	6.7	6.6	6.0	6.0	6.2	5.6
(세세)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6.5	6.3	5.7	5.6	5.8	5.3
(세세)그 외 기타 숙박업	0.2	0.3	0.3	0.4	0.3	0.3

주 : 2016~2019년은 서비스업조사가 조사기반, 2020~2021년은 등록기반으로 이루어져 종사자 규모의 시계열 비교는 어려움.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외에 관광산업조사를 통해 관광숙박업(호텔, 리조트, 콘도) 종사자를 파악할 수 있다. 관광산업조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 유원시설에 대한 매출액, 이용객, 종사자 수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관광숙박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만 명의 종사자 수가 나타났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부분 종사자 규모가 50인 이상인 중·대형 숙박시설의 종사자가 감소하였고, 가족 단위의 방문이 주로 이루어지는 휴양, 콘도 관련 사업체의 종사자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표 9〉 종사자 규모별, 종류별 관광숙박업 전체 종사자 수

(단위: 명)

	전체	종사자 규모별					종류별		
		1~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4	67,465	2,204	7,732	6,292	9,984	41,253	49,782	3,107	14,576
2015	70,305	2,838	9,170	6,361	9,619	42,317	49,617	3,464	17,224
2016	73,631	3,290	9,564	7,315	10,241	43,222	49,896	4,196	19,538
2017	71,769	3,887	10,047	5,585	10,902	41,348	50,035	4,632	17,102
2018	69,926	4,706	9,315	7,118	12,564	36,222	48,415	5,857	15,654
2019	70,658	4,762	9,661	6,427	12,328	37,478	48,457	6,357	15,844
2020	49,930	5,435	8,558	4,720	7,664	23,553	33,682	5,763	10,485
2021	56,320	5,778	9,283	5,366	8,987	26,905	37,549	6,359	12,41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표 10〉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단위: 개)

	관광호텔업							관광 호텔업 외	휴양 콘도업	총계
	5성급 (특1급)	4성급 (특2급)	3성급 (1등급)	2성급 (2등급)	1성급 (3등급)	등급 없음	소계			
2014	88	103	207	124	126	189	837	255	201	1,293
2015	86	115	152	115	156	283	907	372	209	1,488
2016	85	122	190	165	173	236	971	551	216	1,738
2017	78	117	210	209	188	224	1,026	591	227	1,844
2018	65	95	192	229	154	309	1,044	839	228	2,111
2019	64	111	234	265	163	228	1,050	959	235	2,218
2020	60	101	211	263	157	279	1,071	993	237	2,301
2021	61	99	209	256	135	535	1,295	835	242	2,372
2022	64	104	217	261	141	371	1,158	973	238	2,369

주 : 2014년까지는 특1급~3등급의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 5성~1성의 등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각 연도.

관광산업조사 외에 한국호텔업협회에서는 5성급, 4성급과 같은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고 호텔의 등록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어, 사업체 수를 등급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1,300여 개의 관광숙박업 사업체 중 840개 업체가 관광호텔업일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관광조사사업에서 기타 호텔업에 해당하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 등을 중심으로 관광숙박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4. 정보통신업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정보통신업의 2021년 연평균 취업자는 90만 명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68.5만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4.4만 명으로 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보다 경찰조사 취업자에 가깝다. 서비스업조사에서는 74만 명으로 관찰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중분류 업종인 우편 및 통신업은 공영우편업(우체국)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보험통계 및 서비스업조사에서는 누락이 되지만 전기통신업 7만 명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 및 숙박업 등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낮은 것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업은 가입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출판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은 고용보험통계에 비해서 서비스업조사가 적게 관측되었다. 중분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서비스업조사 대비 고용보험통계 비중이 다른 중분류 업종보다 낮은데, 컴퓨터시설 설치 및 장애, 복구 업무와 같은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표 11〉 2021년 자료원천별, 소분류별 정보통신업 취업자

(단위:천 명)

업종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통계(A)	지역별 고용조사	서비스업 조사(B)	A/B
(대)정보통신업	901	685	744	911	741	1.00
(중)출판업		318	464	434	395	1.18
(소)서적, 잡지 및 기타 출판			53	80	67	0.79
(소)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11	354	328	1.25
(중)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		53	45	72	77	0.59
(소)영화, 방송 제작 및 배급업			42	69	70	0.61
(소)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3	3*	7	0.38
(중)방송업		29	23	58	31	0.76
(소)라디오 방송업			2	3*	3	0.69
(소)텔레비전 방송업			22	55	28	0.76
(중)우편 및 통신업		90	72	134	-	-
(소)공영우편업			6	64	-	-
(소)전기통신업			67	71	-	-
(중)컴퓨터, 시스템 통합, 관리업		134	63	140	165	0.38
(중)정보서비스업		60	63	75	74	0.85
(소)자료처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76	43	34	2.23
(소)기타 정보 서비스업			17	32	40	0.43

주: 1) 지역별고용조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 증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상대표준오차(25% 이상)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움.

2) - 는 서비스업조사에서 미조사된 부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정보통신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콘텐츠산업과 ICT 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콘텐츠산업은 출판, 만화, 영화, 게임 등을 제작하는 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산업조사를 통해 콘텐츠산업 부문별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정보 등 업종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ICT 산업은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작하는 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인력동향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산업의 인력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소분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는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출판사업체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출판업 중 소분류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취업자 수는 ICT 인력조사 기준 33.8만 명으로 서비스업조사 기준 32.8만 명과 비슷하게 나타나 두 자료 모두 신뢰할 수 있다. 서적

및 인쇄물 출판업(소분류)의 경우 콘텐츠산업조사에서 7만 명, 서비스업조사에서 6.7만 명으로 비슷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적 및 인쇄물 출판업 중 세분류인 서적 출판업은 서비스업조사, 콘텐츠산업조사(출판산업), 출판산업 실태조사²⁾ 모두 3.4만~3.6만 명으로 일치하는 반면,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의 경우 서비스업조사 3만 명과 콘텐츠산업조사 3.2만 명은 비슷하나 신문잡지실태조사는 5만 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신문잡지실태조사 내 인터넷 신문에서 2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은 종사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세세분류별로 신문산업이 잡지산업보다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정기간행물 사업을 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2〉 자료원천별, 세분류별 출판업 종사자 수(2021년)

(단위: 명)

업종	서비스업 조사	ICT 인력조사	콘텐츠 산업조사 (출판산업)	출판산업 실태조사	신문잡지 실태조사
(중)출판업	394,859				
(소)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6,829		69,688		
(세)서적 출판업	33,619		34,806	35,939	
(세세)일반 서적	18,814		17,483	15,605	
(세세)만화 출판업	1,858		*2,278		
(세세)교과서, 수험서, 학습지	11,946		17,323	20,334	
(세)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30,276		31,732		50,254
(세세)신문	17,585		16,403		43,328
· 종이신문					22,288
· 인터넷신문					21,040
(세세)잡지 및 정기간행물	12,691		15,329		6,926
(세)기타 인쇄물 출판업	2,934		3,150		
(소)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8,030	337,913			
(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886	44,595	**45,252		
(세)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8,144	293,318			

주: * 콘텐츠산업조사 내 만화산업(일반출판사의 만화부문 및 만화출판사)으로 분류되며 출판산업과는 별도로 조사되었음.

** 콘텐츠산업조사 내 게임산업(게임 제작 및 배급)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인력동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영상, 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는 2021년 서비스업조사 기준 7.6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콘텐츠산업조사 기준 영화산업에서 1.3만 명, 애니메이션산업에서 0.6만 명, 방송영상

2) 출판산업 실태조사에서 인쇄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서점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독립제작사³⁾에서 1.3만 명, 음악산업에서 0.9만 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영화산업 종사자는 2019년까지 3만 명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계에 반영된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극장상영 부문의 종사자가 2만 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천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콘텐츠산업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관측되는 반면, 서비스업조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영화,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 1만 명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⁴⁾.

〈표 13〉 자료원천별, 산업종류별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 수(2021년)

(단위 : 명)

업종	서비스업조사	콘텐츠산업조사
(중)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6,722	
(소)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69,680	
- 영화산업		13,240
· 영화제작, 지원, 유통		11,956
· 디지털 온라인 유통업		1,284
- 애니메이션산업		6,131
- 방송영상독립제작사(PD,작가,기술 등)		13,568
(소)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7,042	
- 음악산업(제작, 출판, 배급)		9,149
· 음악제작업		7,324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686
· 음반복제 및 배급업		1,139

주 : 콘텐츠산업조사 내 영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사업(방송영상독립제작사), 음악산업조사의 종사자 규모를 의미.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방송업의 경우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나뉘고 텔레비전 방송업은 지상파 및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나뉜다. 서비스업조사에서의 방송업 종사자 수는 3만 명이며 콘텐츠산업조사에서의 방송산업종사자는 3.7만 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ICT인력동향조사에서는 지상파 방송업에서 1.4만 명, 유선 및 위성, 기타 방송업에서 약 3만 명이 종사하여 서비스업조사와 콘텐츠산업조사보다 다소 많은 상황이다. 유선 및 위성, 기타 방송업 종사자 중 대부분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을 계약하여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업자(PP : program provider)에서 종사하고 있다.

3) 콘텐츠산업조사에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정보통신업에서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에 해당한다.

4) 서비스업조사는 2020년 기준 등록센서스로 모집단 적용이 달라지면서 2019년 이전과 시계열 비교가 어렵다.

〈표 14〉 자료원천별, 산업종류별 방송업 종사자 수(2021년)

(단위: 명)

업종	서비스업조사	콘텐츠산업조사	ICT인력동향 실태조사
(중)방송업	30,942	36,592	43,672
(소)라디오 방송업	2,596	-	-
(소)텔레비전 방송업	28,346	36,592	43,672
(세)지상파 방송업	11,792	13,670	13,806
(세)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6,554	22,922	29,866
· 유선방송		4,505	4,839
· 위성방송, 인터넷영상물제공업(IPTV)		1,298	
· 방송채널사용사업(PP)		17,119	25,027

주 : 콘텐츠산업조사의 방송산업 종사자 통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에서도 확인 가능함.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인력동향실태조사」.

〈표 15〉 자료원천별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추이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데이터산업실태조사						
전체 ICT 인력	288,621	294,753	318,062	344,672	366,021	394,709
데이터 직무 인력	73,256	77,105	82,623	89,058	101,967	122,431
-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9,272	10,291	11,541	13,467	17,273	22,124
-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35,404	37,516	40,197	42,979	48,644	58,733
-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28,580	29,298	30,885	32,611	36,050	41,574
데이터 직무 외 인력	215,365	217,648	235,439	255,614	264,054	272,278
사물인터넷사업실태조사						
전 체	71,462	73,051	73,941	75,082	92,577	97,965
플랫폼	10,033	13,127	15,704	12,506	13,041	13,750
네트워크	7,542	7,605	6,663	8,642	8,742	9,336
제품기기	13,976	14,152	15,890	18,670	24,921	26,333
서비스	39,911	38,167	35,684	35,264	45,874	48,546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총 계			46,275	54,101	54,706	63,562
정보보안(연구개발, 컨설팅 등)			13,378	15,655	15,832	17,699
물리보안(제품개발, 기술지원 등)			32,897	38,446	38,874	45,86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실태조사」, 「사물인터넷사업실태조사」,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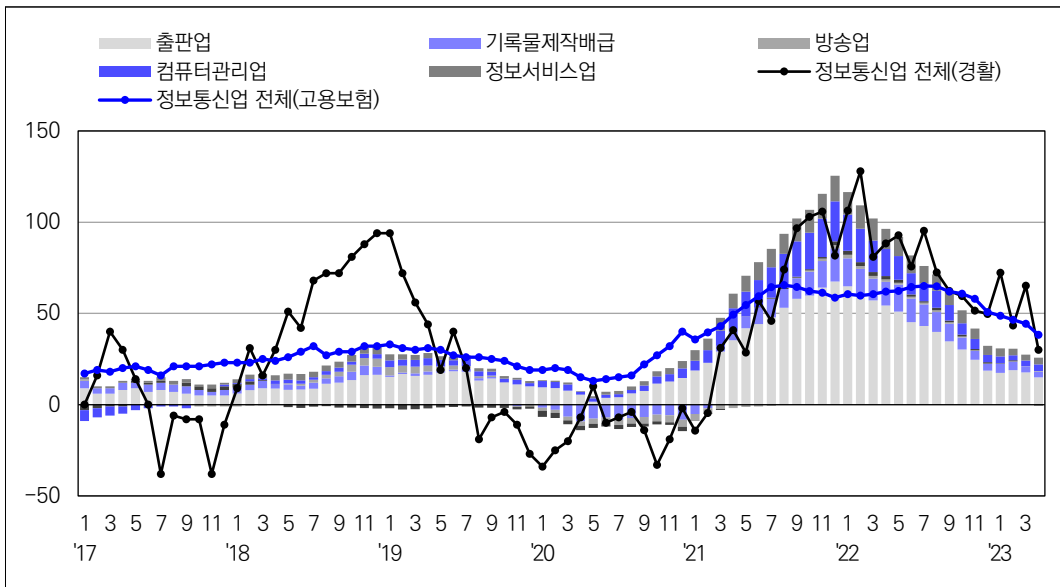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서 데이터산업실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

다. 데이터 처리, 구축, 판매와 같은 데이터 직무 종사자는 2021년 기준 12.2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만 명 증가하였으며, 사물인터넷분야 종사자는 9.8만 명, 정보보호분야 종사자는 6.3만 명 등으로 대부분의 통계에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21년 전년대비 5.4만 명, 2022년 8만 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고용보험통계에서도 취업자 증가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2021년 취업자 증가폭이 7.8만 명으로 경찰과 같은 수준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5만 명이 증가하여 경찰조사보다는 다소 둔화된 흐름이다. 중분류 중에서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출판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업종 내 소분류 비중을 고려하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소분류 업종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중분류 업종별 정보통신업 사업체노동력조사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021년 기준 122만 명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파악된 취업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6만 명

으로 약 30만 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업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되면서 110.5만 명으로 나타난다. 정보통신업에 비해 고용보험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가 큰 편인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34.5만 명으로 지역별고용조사나 서비스업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기타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이 많은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서비스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표 16〉 2021년 자료원천별, 소분류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단위: 천 명)

업종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통계(A)	지역별 고용조사	서비스업 조사(B)	A/B
(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19	1,163	906	1,223	1,105	0.82
(중)연구개발업		282	138	239	-	-
(중)전문서비스업		479	361	502	586	0.62
(소)법무관련 서비스업			71	90	96	0.74
(소)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3	108	101	0.82
(소)광고업			68	99	99	0.69
(소)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	8*	11	0.63
(소)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130	190	261	0.50
(소)기타 전문서비스업			2	9*	18	0.10
(중)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332	345	336	398	0.87
(소)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280	239	282	0.99
(소)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5	97	116	0.56
(중)기타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69	62	147	121	0.51
(소)수업			12	19	19	0.64
(소)전문 디자인업			21	69	43	0.50
(소)사진 촬영 및 처리업			7	31	26	0.26
(소)그 외 기타			22	28	34	0.65

주: 1) 지역별고용조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 증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상대표준오차(25% 이상)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움.

2) -는 서비스업조사에서 미조사된 부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중분류 업종인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공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업은 서비스업조사의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조

사⁵⁾를 통해 매년 연구개발인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직간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연구개발 전체 인력은 78.6만 명이며, 그중 연구보조 및 행정, 지원인력⁶⁾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연구원)은 58.7만 명이다. 민간 기업체 단위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43만 명으로 가장 많다. 전공별로는 공학전공자가 연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인문·사회과학분야 전공자는 전체 연구원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소지자는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직접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개발인력조사 대비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적은 것은 연구개발업이 아닌, 학사 학위를 가지고 연구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민간기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분류 업종인 전문서비스업은 다시 소분류로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으로 나뉜다. 이 중 법무관련

〈표 17〉 수행주체별, 전공별, 학위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추이

(단위: 명)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전체 연구개발인력		202,347	237,232	335,428	500,124	619,907	747,288	785,594
연구원 총계		132,023	159,973	234,702	345,912	453,262	558,045	586,666
수행주체	공공연구기관	15,503	13,913	15,501	26,235	35,550	41,005	42,566
	대학	45,327	51,727	64,895	93,509	99,870	115,924	114,635
	기업체	71,193	94,333	154,306	226,168	317,842	401,116	429,465
전공별	공학	78,936	109,060	169,145	231,913	308,230	371,068	386,778
	이학	23,383	27,040	33,248	46,023	57,976	81,152	88,727
	농업 및 의약보건학	17,048	19,519	21,956	28,128	35,111	44,115	46,757
	인문·사회과학				39,848	51,945	61,710	64,404
학위별	박사	35,105	46,146	57,942	81,442	98,578	116,784	121,015
	석사	44,178	51,130	78,579	109,224	129,264	153,878	159,973
	학사 및 기타	49,032	62,697	98,181	155,246	225,420	287,383	305,678

주 : 2008년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 부문으로 확대하였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5) 각 국가별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인적 및 금융자원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OECD는 연구개발조사를 위한 표준지침을 지정하였고 이러한 표준지침을 프라스카티 매뉴얼(OECD Frascati Manual)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전부터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통해 연구인력수준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OECD 가입 이후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OECD에 제공하고 있다.
- 6)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원 부문은 연구개발업에서 제외된다.

서비스업과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은 세세분류상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분류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된 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종사자 규모를 협회 홈페이지와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등)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업조사에서 법무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0만 명인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집계한 변호사 수 3.4만 명,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집계한 법무사 수 약 8천 명, 변리사 4천 명, 행정사 및 공인노무사 1.5만 명을 모두 합친 숫자(약 6만 명)보다 많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서비스업조사에서 10만 명으로 조사되지만, 협회에서 집계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합하면 약 4만 명에 불과하다. 조사시기(2021년)가 다르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조사와 협회 자료의 차이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 등 전문서비스

〈표 18〉 전문서비스업 내 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규모

(단위: 명)

	서비스업조사 (2021년)	협회 및 단체		
	규모	규모	정의	자료출처(기준)
(소)법무관련 서비스업	96,396			
(세세)변호사업	51,371	33,956 (1,405)	변호사 수 (법무법인 수)	대한변호사협회 (2023년 6월 29일 기준)
(세세)법무사업	22,918	7,627	법무사 수	대한법무사협회 (2023년 7월 5일 기준)
(세세)변리사업	10,818	10,750 (4,190)	변리사 수 (시험 출신)	대한변리사회 (2023년 7월 5일 기준)
(세세)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11,289	9,829	행정사 수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938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26일 기준)
(소)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101,158			
(세세)공인회계사업	33,958	25,085 (222)	회계사 수 (회계법인 수)	한국공인회계사회 (2023년 4월 30일 기준)
(세세)세무사	66,986	15,548 (747)	세무사 수 (세무법인 수)	한국세무사회 (2023년 5월 31일 기준)
(세세)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214			

주: 1) 변호사 수 및 법무법인 규모는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법무부에서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2) 변리사 중 시험출신을 제외한 변리사는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특허청 심사관을 의미함.

3) 전문공인노무사 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1~31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3차 합격자를 합산한 값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를 보조하는 업무, 예를 들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중 부기서비스, 재무 회계장부의 기장 대리를 맡는 등 보조업무 종사자의 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고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분류 업종인 전문서비스업 중 소분류 업종에 해당한다. 광고업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업과 광고매체를 판매하거나 옥외 및 전시광고를 진행하는 기타 광고업으로 나뉘며, 광고물을 인쇄하는 업종(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광고용 영화 영상을 제작하는 업종(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된다. 광고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로, 광고산업의 경기상황은 실물경제상황의 선행지표로 파악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⁷⁾. 광고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광고산업조사를 통해 종사자 수⁸⁾를 파악할 수 있다. 광고산업에 포함된 사업체 수는 약 7천 개, 종사자 수는 6.5만 명으로, 광고제작업과 인쇄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조사상 광고업 종사자 수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2021년에는 사업체 수 6.6천 개, 종사자 수가 7.5만 명 수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사업체 수는 감소했으나 종사자 수는 늘어났다. 세부 업종별로 광고대행업, 광고전문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세부 업종의 종사자 수 변화가 없는 반면, 온라인광고대행업 종사자는 1.3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9〉 자원원천별 광고업 종사자 규모

	2016			2021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평균직원 (명/개)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평균직원 (명/개)
서비스업조사 : (소분류)광고업		56,052			99,123	
(세분류)광고 대행업		36,127			71,355	
(세분류)기타 광고업		19,925			27,768	
광고산업조사	7,229	65,049	9.0	6,627	74,517	11.2
- 광고 대행업	2,026	20,463	10.1	1,600	21,120	13.2
- 온라인광고대행업	766	13,482	17.6	972	21,384	22.0
- 옥외광고대행업	564	4,117	7.3	571	3,198	5.6
- 광고전문서비스업	1,550	13,485	8.7	1,229	14,994	12.2
- 광고제작업(광고업 일부 미분류)	1,270	8,763	6.9	1,273	8,911	7.0
- 광고인쇄업(광고업 미분류)	1,053	4,739	4.5	982	4,910	5.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광고산업조사」,

- 7) 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매월 광고 사업체 표본을 선정하여 광고산업경기 예측지수(KAI)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산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8) 광고산업조사에서 광고인쇄업은 제조업 중 인쇄업에 해당하며, 광고제작업의 일부(광고 영상물 제작)는 정보통신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에 해당한다.

6. 금융 및 보험업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상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는 75만 명 수준으로 경찰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분류 단위별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는데 보험업이 2017년 31만 명 수준에서 2022년 29만 명으로 감소하고,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18만 명에서 2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 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분류 단위까지 금융보험업 취업자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 금융보험업 피보험자 수는 47만~50만 명 수준으로 경찰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다 적게 나타난다. 금융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규모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보험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22년 각각 29.2만 명, 22.7만 명인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2년 각각 9.2만 명, 10.1만 명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표 20〉 자료원천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대)금융 및 보험업	794	840	800	778	800	774
사업체노동력조사	(대)금융 및 보험업	757	758	760	755	785	807
	(중)금융업	266	268	274	278	286	288
	(중)보험 및 연금업	312	294	280	273	284	292
	(중)금융 및 보험서비스	180	196	206	203	215	227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금융 및 보험업	468	480	489	492	497	499
	(중)금융업	298	301	304	304	305	307
	(소)은행 및 저축기관	235	237	240	238	237	236
	(소)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12	13	13	14	15	17
	(소)기타 금융업	50	51	51	51	53	54
	(중)보험 및 연금업	87	92	94	94	93	92
	(소)보험업	76	79	80	79	79	77
	(소)재보험업	2	3	3	3	3	3
	(소)연금 및 공제업	10	11	12	12	12	12
	(중)금융 및 보험서비스	82	87	91	94	99	101
	(소)금융 지원 서비스업	52	54	55	56	60	62
	(소)보험 연금관련 서비스업	31	33	36	37	38	3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21〉 금융권역별 회사 수, 임직원, 영업점도 현황

(단위: 명, 개)

		2017Q4(2017년 하반기)				2022Q4(2022년 하반기)			
		회사 수	임직원 수	직원 외 인력 ¹⁾	영업점	회사 수	임직원 수	직원 외 인력	영업점
은행	국내은행	19	111,173	17,323	6,791	20	114,484		5,771
	외은지점	38	3,161		45	35	2,949		41
보험	생명보험	24	24,880	120,528	3,486	23	22,836	77,694	2,054
	손해보험	32	32,509	160,690	2,989	32	32,708	148,695	2,775
금융 투자	증권사	55	35,846		3,034	59	39,538		3,580
	선물사	5	382		47	3	286		46
	자산운용사	215	7,377	3,263		437	12,767	6,089	
	투자자문사	179	1,270	373		379	1,943	636	
	부동산신탁	11	1,713		411	14	2,984		469
	종합금융회사	1	81		5	1	147		4
여신 전문 금융	신용카드사	8	10,978		302	8	12,274		145
	리스사	26	3,334		138	26	4,499		121
	할부금융사	21	4,343		234	25	5,680		204
	신기술금융사	42	1,330		19	97	1,681		15
저축은행		79	9,074		320	79	10,226		283
상호 금융	개별신탁	898	9,190		762	870	10,071		829
	농협단위조합 (농협은행)		95,436		1,131		98,329		1,113
	수협단위조합	91	7,184			91	7,527		
	산림단위조합	142	3,504			142	3,627		
금융지주회사(지주회사)	9	911			10	1,339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29,142		1,315		29,641		1,294	
합계(농협단위조합 제외)		311,020	613,197			330,733	563,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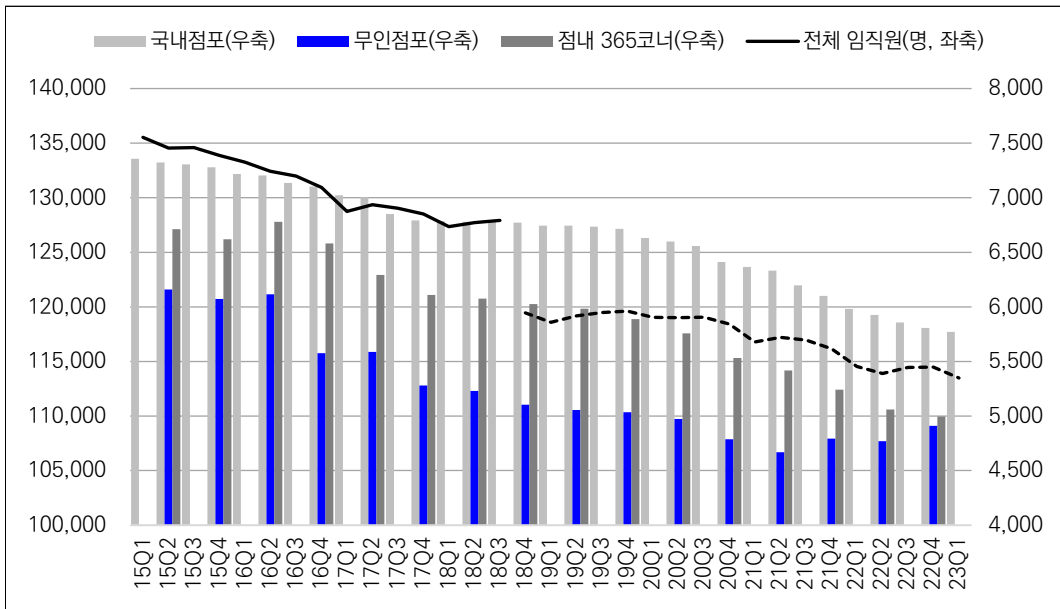
주 : 1) 직원 외 인력은 은행업의 경우 계약직원 외 사내 방송인력, 외환, 금융 부문 전문인력 등이 포함되며 2018년 4분기 이후 전체 임직원 수로 집계하고 있음. 보험업은 등록 설계사를 의미하며, 금융투자업은 투자권유대행인, 운운전문인력을 의미함.
 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별도의 보고 없이 통계정보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 본 자료는 2023년 7월 4~5일에 걸쳐 수집되었음.
 3) 상호금융 중 농협, 신탁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보고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합계는 보고자료 기준으로 합하였음.
 4)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에 적용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기본현황을 파악하거나 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연간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농협, 「NH농협은행 연차보고서」; 신탁, 「신탁통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통계」 및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현황」.

서비스업조사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은행중앙회, 보험협회 등 협회 및 단체 자료를 통해 다양한 금융권역별로 고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⁹⁾. 금융

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지표나 재무현황 자료를 협회 및 단체의 협조를 얻어 수집, 관리하여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4분기(반기자료의 경우 하반기) 기준, 20개의 국내은행에서 약 11만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직원 외 인력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 수와 비교해서 약 1.4만 명이 감소하였다. 영업점포(국내)는 5년 전에 비해서 약 1,000개가 감소하여 가장 많은 인력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신규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이 새로 진입되었으나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들 세 기업의 임직원 수가 2022년 기준 2,500명을 넘지 않아 전체 임직원 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점포 수(국내 기준)는 2015년 1분기 7,356개에서 2023년 1분기 기준 5,771개로 8년 사이 1,600여 개의 점포가 사라졌고, 점포 내 자동화기기가 배치되어 있는 365코너 역시 2015년 상반기 6,711개에서 2022년 하반기 4,955개로 감소하였다. 무인점포 역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국내은행 임직원 수와 영업점포, 무인점포, 점포 내 365코너 수 추이



주: 2018년 3분기까지 임직원 수와 직원 외 인력을 포함하였으며, 2018년 4분기 이후 전체 임직원 수로 집계하고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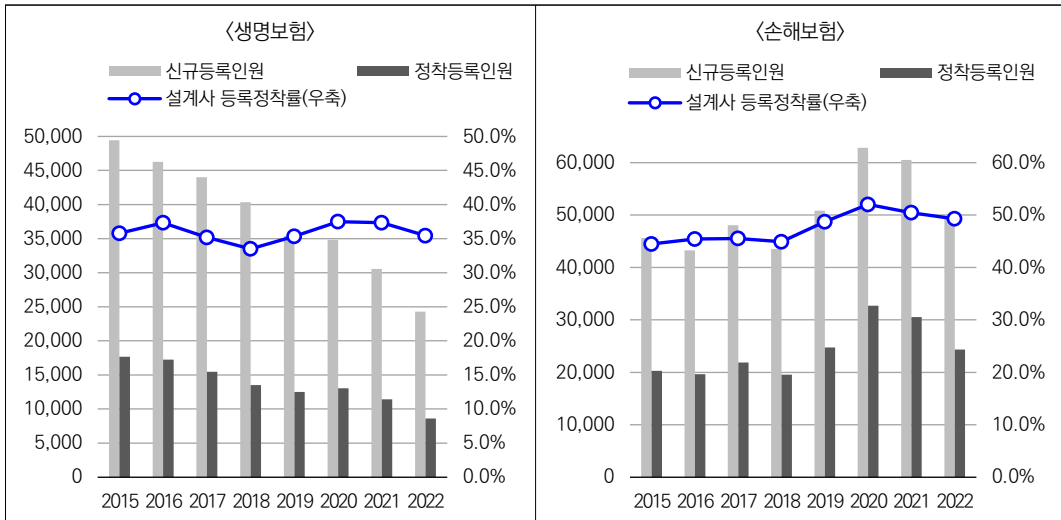
9) 금융 및 보험업은 은행법(제43조의2), 보험업법(제118조)에서와 같이 사업성과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협회 및 단체에서 업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경영지표나 재무현황 등을 수집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판매직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매우 많은 편으로, 2017년 기준 생명보험은 임직원 2.5만 명과 등록 설계사 12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3.3만 명의 임직원과 16만 명의 등록 설계사가 종사하고 있다. 5년 동안 임직원 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등록 설계사 수는 생명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여 2022년 기준 7.8만 명의 등록 설계사가 일하고 있다. 새롭게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생명보험분야에서 2015년 5만 명이었던 신규등록 설계사 수가 2022년에는 2.4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4.5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등록 이후 13개월 차에 설계사 자신이 모집한 계약이 10건 이상이거나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 5건 이상으로 보험설계사 활동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45%에서 5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금융투자 부문의 산업 및 고용 규모는 성장하여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회사 수는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전체 임직원 수도 증가했으나 회사 수만큼 증가하지는 않아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임직원 외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투자권유대행인력, 운용전문인력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신용카드업, 리스업 등으로 이루어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개에서 97개로 증가한 신기술금융사¹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임직원 수는 증가하

[그림 6] 보험업계의 신규등록설계사 수와 설계사 정착률

(단위: 명, %)



주 : 설계사등록정착률은 매해 각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전체 설계사등록정착률은 각 보험회사별 정착등록 설계사 수 전체를 신규등록설계사 수 전체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0)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로 창업투자회사와 달리 용자업무가 가능하다.

고 점포 수는 감소하였다. 농협, 수협, 신협으로 알려진 상호금융은 2017년과 비교하여 점포 수, 임직원 수 모두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 은행업법에 적용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 역시 영업점(금고수)과 임직원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7.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등 정부의 주도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종사자 대부분은 정부가 실무 및 행정업무를 위해 직접 채용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 그중 교육서비스업은 전국의 유치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직원 등 현황을 조사하여 통계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매년 교육기본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¹¹⁾.

〈표 22〉 2022년 자료원천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단위: 명)

	전 체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전문포함)	특수 외 (교육지원)	교습 학원, 기타교육
경제활동인구조사	1,901,000						
사업체노동력조사	1,606,408						
연금 및 보험자료	1,270,004						
- 고용보험	558,064	130,331		130,567	98,919	28,176	170,071
- 사학연금	333,231	34,001	1,940	54,335	238,677	4,278	
- 공무원연금	378,709						
교육기본통계	1,192,807	58,560	218,839	270,038	218,815	89,139	337,416
서비스업조사(2021년)							643,422

주: 1) 교육기본통계의 경우 교원 및 직원 모두 합하였으며, 고등교육부문은 정규교원 및 비정규교원 모두를 포함하였음.

2) 공무원연급의 경우 교육직 공무원연급 가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공무원연금공단_공무원연금주요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2022년 연평균 190만 명으로, 교육기본통계에서 조사된 교직원, 사설학원 강사 수 119만 명보다 70만 명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같은 기간 160.6만 명으로 경활조사와 약 30만 명 차이가 발생한다. 고용보험의

11) 교육기본통계는 전국 21,000여 개 학교의 통계를 보고체계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교육부(~1997년)와 한국교육개발원(1998년~)에서 각 시도교육청, 각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 개별 학교 순으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설학원 및 독서실에 대해서는 시설 수 및 강사, 직원 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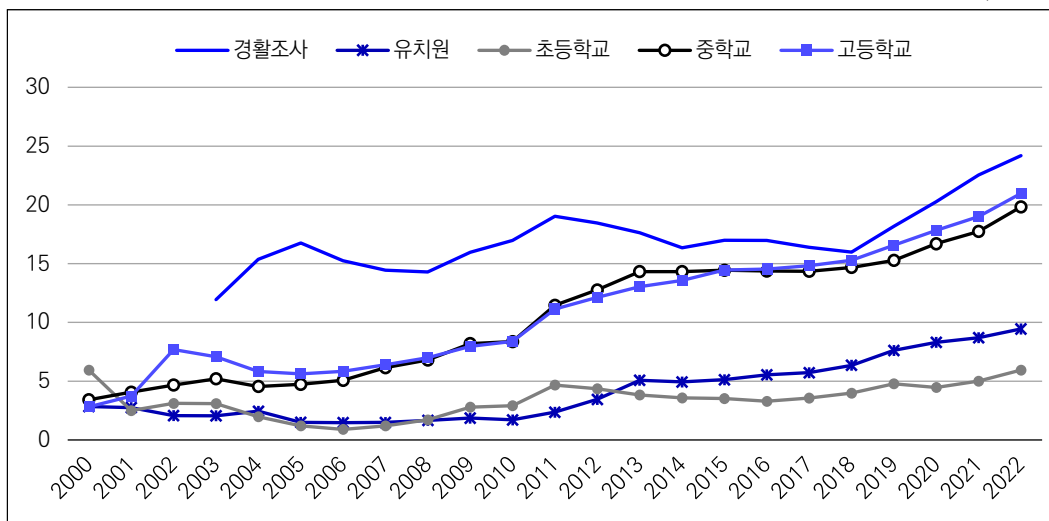
경우 2022년 기준 피보험자 수는 56만 명 수준으로, 교사 대부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가입자 중 교육직은 37.8만 명, 사학연금 가입자는 33.3만 명으로 세 보험 및 연금 가입자 수를 합하면 127만 명 수준으로 나타난다. 전체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본통계, 보험 및 연금자료에서 관찰되지 않는 교육서비스 종사자는 학습지 교사 및 개인방문교사,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등이 포함된다.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간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찰조사 취업자 190만 명 중 46만 명이 계약기간의 종료가 나타나는 기간제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에서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는 201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매우 적었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기간제 취업자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2007년 당시 교육서비스 기간제 취업자의 90.9%는 50세 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50세 이상의 비율이 32.6%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사회초년생 및 경력단절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던 기간제 취업자가 점차 50세 이상의 퇴직을 앞둔 연령대 중심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교육기본통계의 퇴직사유 비율 변화를 통해 해석해 보면, 2007년 퇴직자 중 명예퇴직 비율이 35.8%에서 2022년 55.3%

[그림 7] 경찰조사상 기간제 취업자 비율과 교육기본통계상 학교별 기간제 교원 비율 추이

(단위: %)



주 : 2003년 산업분류 8차, 2004~2012년 산업분류 9차, 2013년 이후 산업분류 10차 교육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표 23〉 경활조사상 기간제 취업자의 연령대 및 여성 비율과 교육기본통계상 퇴직사유별 비율

(단위 :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교육기본통계			
	연령대 비율		기간제 여성 비율	정년퇴직 비율		명예퇴직 비율	
	15~49세	50세 이상		전체	(여성)	전체	(여성)
2007	90.9	9.1	71.1	44.1	(17.3)	35.8	(55.6)
2012	85.1	14.9	72.2	41.2	(25.5)	42.5	(53.7)
2017	80.1	19.9	71.1	33.1	(19.5)	41.1	(51.8)
2022	67.4	32.6	71.3	32.1	(22.2)	55.3	(65.8)

주 : 2007, 2012년 산업분류 9차, 2017, 2022년 산업분류 10차 교육서비스업.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제외하면 퇴직사유에는 질병, 사망, 결혼, 징계, 이직, 기타가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로 크게 늘어났다. 사학연금을 일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퇴직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간제 교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간제 취업자 중에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과거에는 육아 및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기간제 취업자로 진입했다면, 현재는 정년을 앞두고 퇴직한 뒤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되면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교육시설의 종사자 규모는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교습 학원 및 태권도장, 음악, 미술학원과 같은 사설교육시설의 경우 종사자 규모의 파악이 쉽지 않다. 교육기본통계에서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설학원의 시설 및 강사 수 등을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33.7만 명으로, 서비스업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원 및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종사자 64.3만 명과 큰 차이가 있다. 통계청 및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통해 사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지출수준과 참여시간 등을 일반과목과 예체능, 취미 부문별로 매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의 공급자 입장에서 학원 및 학습지 방문교사, 개인 과외교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종사자 규모와 소득수준 및 근로시간 등의 업무실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 관련 통계개발이 필요하다.

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중분류 업종별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뉜다. 먼저 우리나라의 보건업은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관 역시 건강보험수급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 역시 건강보험의 수급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 전국 건강보험요양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 요양기관의 개설 및 허가의 조건이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고한 현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평가하는 데 산정요소로 활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 재정상황을 조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현황이나 입원실, 의료장비, 의료인력 현황 및 건강보험급여실적을 조사하여 건강보험통계(보고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022년 연평균 271.4만 명

〈표 24〉 자료원천별 세세분류 보건업 취업자

(단위: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서비스업조사	건강보험통계_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의사, 약사 등 + 간호사 및 기타인원)		
	2022년	2021년	2012년 4분기	2017년 4분기	2022년 4분기
(중)보건업	873,591	1,121,624	487,338	699,519	957,512
(소)병원	488,376	632,657	253,907	417,868	592,091
(세세)종합병원		327,616	138,177	223,560	326,358
(세세)일반병원		135,616	68,521	90,393	119,735
(세세)치과병원		9,859	5,259	7,321	8,710
(세세)한방병원		20,744	4,864	7,771	19,621
(세세)요양병원		138,822	37,086	88,823	117,667
(소)의원	357,329	421,150	219,310	266,149	351,309
(세세)일반의원		242,259	135,258	161,557	220,967
(세세)치과의원		104,234	55,744	71,565	88,129
(세세)한의원		58,954	28,308	33,027	42,213
(세세)진단 병리 검사		15,703			
(소)공중 보건 의료업	9,201	43,990	14,069	15,461	14,089
(소)기타 보건업	18,685	23,827	52	41	23
(세세)앰블런스 서비스업		1,865			
(세세)유사 의료업		16,985			
(세세)그 외 기타 보건업		4,977	52	41	23
*약국(보건업에서 제외)			28,144	30,638	34,023

주 : 1)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포함, 일반병원은 보건의료원 포함, 요양병원은 정신병원(2021년부터 구분) 포함, 공중보건의료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의미함. 기타 보건업에는 조산원을 포함.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주 16시간 이상), 조산사(2016년 이후), 물리치료사의 경우 전속 기준, 간호사 및 기타인원의 경우 요양기관이 신고한 인원수 현황 기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의 경우 상근 기준.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이며, 이 중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중분류 취업자는 105.6만 명으로 2017년 취업자 86만 명보다 20만 명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조사 결과 2021년 기준 보건업 종사자는 112.2만 명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와는 약 7만 명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87.4만 명으로 조사자료와 차이가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개원하여 고용주로 있는 의료인일 가능성이 높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비교적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은 의료인 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요인이 적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기관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기준 99.1만 명으로 서비스업조사와 약 13만 명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차이의 대부분은 기타 보건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타 보건업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대부분 받지 않는 구급차 및 앰블런스 서비스, 언어치료, 지압사, 침술원 등 유사 의료업, 그리고 혈액은행, 조혈모세포은행업과 같은 기타 의료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국¹²⁾을 제외하면 95.7만 명이 보건업에 해당된다. 현재 의료인력현황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2012년 당시 병원은 25만 명, 의원은 22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59만 명, 35만 명으로, 의원보다는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증가하고 있다¹³⁾. 의료인력을 직업별로 나누어 보면 2020년 기준 92.5만 명의 의료인력 중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은 25만 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의료인력은 67.2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면허의사 수¹⁴⁾는 12.9만 명으로 의료기관에 등록된 의사 수와는 약 3만 명의 차이가 있다. 간호사의 경우 43.6만 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절반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영양사는 자격증 취득 후 영양교사 혹은 단체급식시설에 종사하면서, 안경사는 대부분이 안경점에서 근무하면서 면허대비 의료기관 종사비율이 매우 낮다.

비의료기관에서 종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인력, 개원 및 봉직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의료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작성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하여 의사는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간호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경우도 비의료기관에서

12) 건강보험통계상 주 16시간 이상 약국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2022년 기준 3.4만 명으로 집계되지만 표준산업 분류기준에서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13) 의원은 병상 수를 30개 미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병원은 병상 수 30개 이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100개 이상, 7개 진료과목(300개 이상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목 수가 20개 이상이며,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며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14) 건강보험통계는 비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등 정부(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한 의료인 면허의 전체 수와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구강정책과에서는 의료인과 관련된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이 등록된 의료인력 현황에 대해서 매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표 25〉 2020년 기준 직업별, 활동유형별 의료인력자원

(단위: 명)

	건강보험통계 (4분기 기준)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의료기관 근무	비의료기관 근무	비활동
전 체	924,756	1,380,796	828,107	399,046	648,677
의사	107,976	129,294	99,492	6,712	8,981
치과의사	26,978	32,340	25,405	1,050	2,964
한의사	22,038	26,115	20,101	1,227	2,618
조산사	70	8,220	1,807	1,088	3,513
약사	39,765	72,530	32,834	9,833	13,897
한약사	-	2,779	911	753	649
물리치료사	43,735	75,714	42,129	9,575	18,491
작업치료사	7,996	20,292	8,010	5,110	5,036
사회복지사	4,136	-	-	-	-
간호사	225,462	436,340	216,408	68,689	106,396
간호조무사	208,531	-	256,382	149,857	319,117
임상병리사	26,038	63,453	23,640	15,248	18,880
방사선사	28,435	48,593	27,924	7,995	9,352
치과기공사	2,959	36,579	3,972	16,036	13,822
치과위생사	44,727	88,422	46,303	8,797	27,68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440	27,637	9,383	7,029	8,39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930	-	-	-	-
동위원소취급자(특수)	218	-	-	-	-
방사선취급감독자	212	-	-	-	-
영양사	7,471	161,257	10,384	70,668	67,998
조리사	10,012	-	-	-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106	-	-	-	-
안경사	1,913	45,846	3,022	19,379	20,884
정신건강전문요원	1,857	-	-	-	-
기타종사자	107,751	-	-	-	-
보건교육사	-	-	3,564	4,164	2,065
위생사	-	94,660	6,041	48,709	32,185
1급 응급구조사	-	-	4,378	10,184	4,548
2급 응급구조사	-	-	586	16,056	1,383
인마사(자격등록)	-	10,725	-	-	-

주: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주 16시간 이상), 조산사(2016년 이후), 물리치료사의 경우 전속 기준, 간호사 및 기타인원의 경우 요양기관이 신고한 인원수 현황 기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의 경우 상근 기준.

2) 활동유형별 의사, 치과의사 수 합계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수를 의미하지 않음.

3)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의료인 수는 면허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근무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면허가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14.5만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에서는 108.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서비스업조사에서는 123.5만 명으로 모두 100만 명 이상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업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의 경우 건강 보험제도와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하거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보건업에 비해 자격 및 설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표 26〉 부문별,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단체 수,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부문	시설 종류	시설, 단체 수	종사자 수	시설 종류	시설, 단체 수	종사자 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1,689	299,844			
장애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458	13,29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4	912
	장애인거주시설	1,430	18,952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13	1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65	4,812			
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5,579	109,84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93	2,042
	재가노인복지시설	4,893	89,800	노인보호전문기관	6	44
	노인여가복지시설	381	8,382	복합노인복지시설	5	26
	노인주거복지시설	253	2,07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	4
아동	아동복지시설 합계	4,491	23,075			
정신보건	정신재활시설	275	1,005	정신요양시설	58	2,164
노숙인등	노숙인등생활시설	97	1,394	노숙인등이용시설	32	328
일반	일반사회복지시설	453	8,789			
저소득	자활시설	251	2,704			
결핵	결핵한센시설	5	94			
한부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2	570			
여성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248	1,268	통합상담소	39	231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44	676	성매매피해지원시설	87	518
다문화	다문화가족복지시설	188	4,513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128	870			
기타	기타시설	80	1,330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보육통계)		30,923	311,99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923	311,996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13,305	96,357			
봉사단체 소속인원		9,638	89,766	지역사회봉사단 소속인원	3,667	6,59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2023년 7월 7일 기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종사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 업무를 표준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¹⁵⁾.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복지시설현황(2023년 7월 7일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부문의 복지시설은 약 3,700개, 종사자 수는 약 38,000명으로 나타난다. 장애인부문 외 노인부문 등 모든 부문의 사회복지시설 수는 약 22,000개, 종사자 수는 약 30만 명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어린이집은 2022년 기준 약 31,000개,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등 모두 약 31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사회복지자원봉사단체¹⁶⁾는 2022년 기준 일반봉사단체와 지역사회봉사단을 모두 합쳐 13,000여 개의 단체와 96,000명의 소속인원이 집계되고 있다.

보고자료를 통해 살펴본 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봉사단체의 종사자를 모두 합하면 70.8만 명 수준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취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치보다 30만 명 이상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 단체가 아닌 종교 관련 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등이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일자리에 참가하는 고령층 취업자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III.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업종의 고용변화까지 살펴보았다.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을 통해 세부 업종별로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협회 및 단체 자료를 통해서 금융보험업이나 전문서비스업 종사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정책시행 과정에서 보고되는 자료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되는 자료를 통해 서비스업 업종별로 고용동향을 살펴보았다.

도소매업은 중분류 업종인 소매업과 도매업의 고용감소가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 및 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15) 노인, 장애인 등 각 부문별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자료를 집계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와 입소자 및 종사자의 규모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육통계를 작성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6)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에서 인증관리시스템(VMS)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규모 및 봉사단체 및 지역사회봉사단에 소속된 인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에 포함된다.

즈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전문점과 커피 전문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무인주문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숙박업의 경우 여관, 호텔, 콘도와 같은 기존 숙박시설보다 게스트하우스, 텐트와 같은 신규 숙박시설의 수요가 최근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체와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최근 전문직이 증가하고 판매직이 감소하고 있는데, 보험업의 경우 직원의 인력에 포함되는 설계사 인력이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문직의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 분야에서 사업체와 임직원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관 교직원 중 중등교육 교사를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명예퇴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명예퇴직 이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보건업의 경우 치과,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의 경우 발급된 면허 대비 실제 의료 종사 비율이 높지만,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은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다양한 자료 원천별로 서비스업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최신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2~3년 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의성은 부족하지만 고용동향의 특징을 세부업종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자료원천을 수집하여 비교하려고 시도했으나 파편화되어 모이지 못한 자료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학원업, 부동산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의 경우 협회나 단체에서 발간된 자료와 보고자료가 부족하여 종사자 규모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자료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KLI**

〈부표 1〉 서비스업 내 통계자료 상세 목록

통계종류	통계명 (작성기관)	자료 주기	최신 자료	산업분류 적용 단위	조사대상
조사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간 (부가=연)	2023년 6월	대분류	모집단 : 대한민국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 : 36,000가구/월
조사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월간	2023년 5월	중분류	모집단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 50,000사업체(고용부문)
보고통계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원)	월간	2023년 5월	소분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조사통계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반기	2022년 하반기	소분류	모집단 : 대한민국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 : 230,000가구
조사통계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통계청)	연간	2021년	세세분류	모집단 : 11개 대분류 업종(E, G, I, J, L, M, N, P, Q, R, S)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기업체(운수업조사) 표본 : 약 250천 개 사업체(서비스업) 약 15,000개 업체(운수업)
기타	협회 및 단체 자료	비정기	실시간	기타 분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협회 및 단체 내 전문가자격 및 면허보유자
조사통계	외식업체경영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2022년	음식주점업 내 세세분류	모집단 : 음식 및 주점업에 속한 사업체 표본 : 전국 3,000개 외식업체
조사통계	콘텐츠사업조사 광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간	2021년	정보통신업 내 세세분류	모집단 : 콘텐츠 사업체, 광고 사업체 (영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방송 등) 표본 : 콘텐츠 사업체 약 12,000개
조사통계	신문·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간	2021년	세분류 (신문잡지업)	발행이 확인된 일간, 주간신문 발행사업체 전수
기타	출판산업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연간	2021년	출판업 이하 세세분류	출판 사업체에 기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표준 2,500개 사업체 내 종사자 수
조사통계	ICT인력동향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간	2022년	정보통신업 이하 세세분류	모집단 : ICT 관련 서비스 및 제조업 표본 : 약 4,300개 사업체
조사통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간	2021년	기타 분류	데이터 산업에 해당하는 모집단 약 10,000개 표본조사 1,500개
조사통계	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연간	2022년	중분류 (수상운송업)	선원법 적용대상 사업장
보고통계	한국철도통계 (한국철도공사)	연간	2022년	소분류 (철도운송업)	지역간철도 및 도시광역철도 사업체 내 철도수송, 영업, 시설 자료
보고통계	항공통계 (한국항공협회)	연간	2022년	중분류 (항공운송업)	항공운송업 업체별 항공공사사 현황

<부표 1>의 계속

통계종류	통계명 (작성기관)	자료 주기	최신 자료	산업분류 적용 단위	조사대상
기타	교통안전정보 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간	2023년 (실시간)	세세분류 (육상운송업)	운수종사자(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회사) 현황
조사통계	관광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간	2021년	기타 분류	모집단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표본 : 약 32,000개
보고통계	보험통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월간	2023년 4월	중분류 (보험업)	국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기타	금융통계 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반기/ 분기	2022년	금융보험업 내 세세분류	국내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기타	금융기관 연차보고서	연간	2022년	금융보험업 내 세세분류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에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내 임직원 현황
조사통계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연간	2021년	중분류 (연구개발업)	전국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시업체 전수조사
보고통계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연간 (반기)	2022년	대분류 (교육서비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 21,000여 개 교,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1,900개 교
보고통계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2023년 1분기	보건업 내 세세분류	건강보험에 가입된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가공통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3년	2021년	보건업 내 세세분류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한 보건의료인력
기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비정기	실시간	중분류 (복지서비스)	장애인, 노인, 여성, 저소득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 수
보고통계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사회보장정보원)	1년	2022년	중분류 (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조리원 등) 현황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현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비정기	실시간	중분류 (복지서비스)	VMS(자원봉사인증관리)를 활용한 봉사단체 및 지역사회봉사단 활동가 규모 (자원봉사자는 제외)